

2021학년도 임용고시 경기도 미술 합격 후기

1차: 66점 (컷: 61.67점/+4.33, 교육학 19.33/전공 46.67)

2차: 85.95점 (실기 21점, 수업실연 18.02점, 수업나눔 9.06점, 개별면접 37.87점) / 합: 151.95

공부기간: 썸초수, 1년 (위상 직강 초수생 1년 패키지 수강)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경기 초수 합격생입니다.

1차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실제 시험장에도 처음 가본 썸초수였습니다. 공부는 정확히 2020년 1월부터 위상미술 직강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1년 패키지로 모든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직-인강 유동적으로 수강) 고득점이 아닌 단기간에 시험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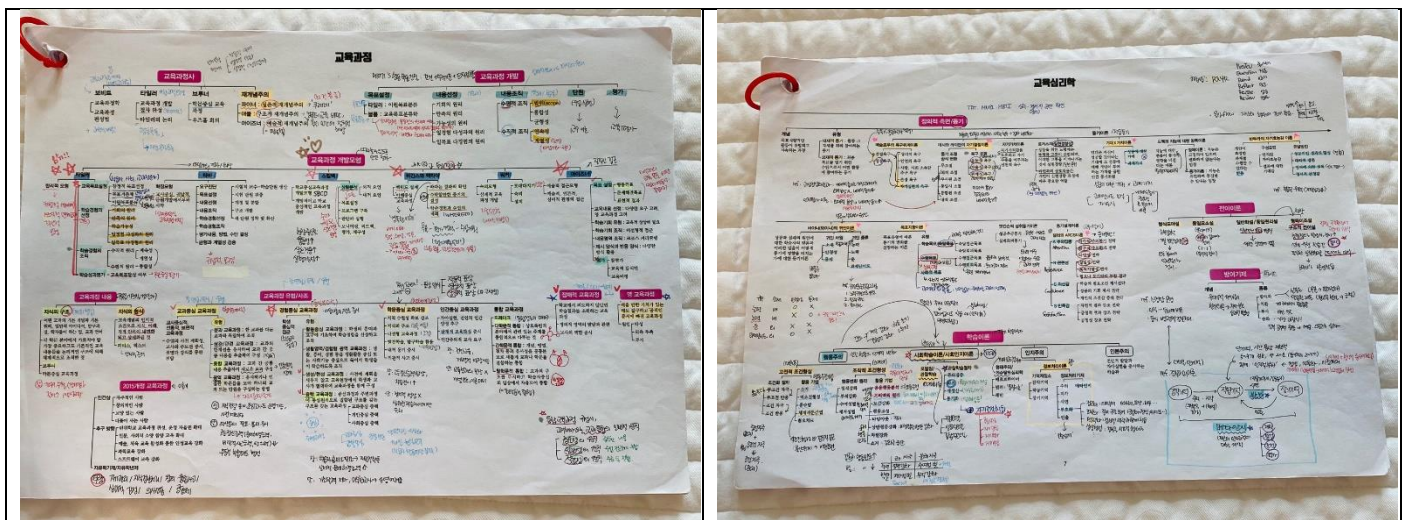
제 방식이 정답이 아닌 저에게 잘 맞는 방식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였기 때문에 최대한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음과 원래 기본 성향이 효율/경제성 등을 중시하는 이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1. 교육학 (ㅇㅅㅎ교육학 1년커리/ALL 인강/스터디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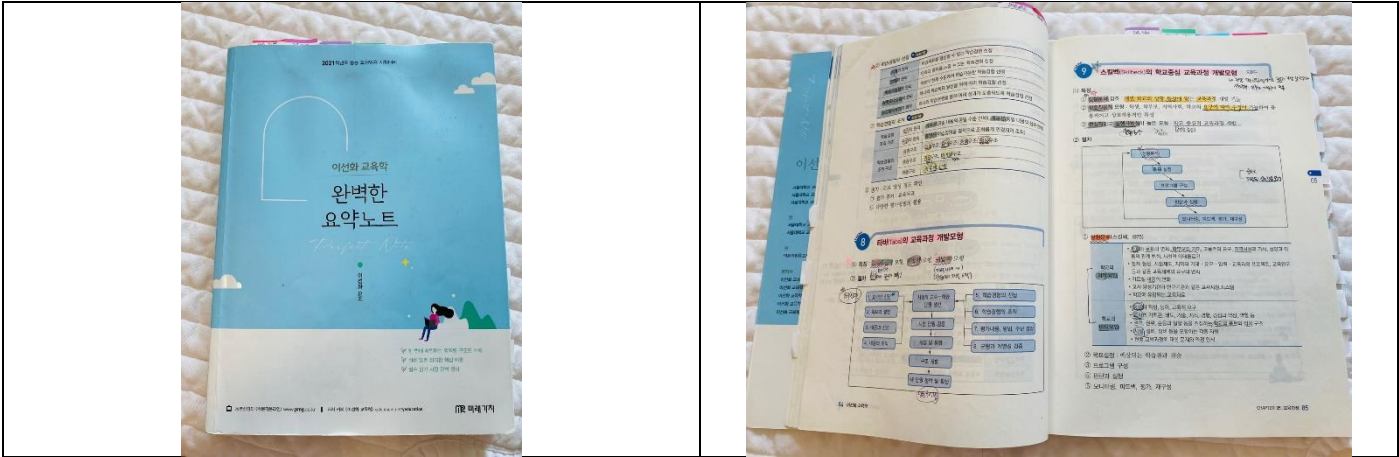
저는 교육학에서 19.33점/20점을 받아 1차컷에서 점수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이선화쌤의 강의를 1년간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선화쌤의 강의는 쌤이 내주시는 과제를 충실히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암기나 회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강은 정해진 날짜에 꼭 수강하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화쌤이 주시는 형성평거나 과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매 수업시간 시작 때 주시는 형성평가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암기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형성평가에서 틀린 내용은 작은 수첩이나 포스트잇에 적어 그날 안에 다시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구조도를 활용하여 암기 및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선화쌤이 주신 구조도를 프린트하여 제가 암기할 내용을 빠르게 덧붙여 5-6월까지 반복해서 보고 암기하였습니다. 구조도를 활용한 이유는 5-6월까지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8월부터는 '완벽한 요약노트' 책을 활용하여 세부적이 내용까지 암기+인출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험 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한 반복하여 회독하며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을 머리 속에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쓰는 백지쓰기는 성향 상 잘 맞지 않아서 주로 회독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백지쓰기를 하면 저는 손과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십분도 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을 회독을 더 많이 하자는 생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근래의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을 보면 주로 암기하여 인출하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묻거나 적용+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론이나 교육학 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암기하는 공부보다는 이해하고 확장시키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육학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항상 시간을 재고 풀었으며 첨삭 시, 16-20점 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육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장지연쌤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일주일 중에 총 2일을 할애하여 교육학만 하루종일 공부하였고 점차 그 시간을 줄여나가서 7월부터는 일주일 중 하루를 투자했습니다. 교육학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집중에서 오랜 시간 끌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별 학습 경향

1-2월	기본강의 수강 (주 2일, ALL DAY), 구조도를 활용하여 기본 기틀 반복 암기, 세부적인 내용에 욕심내지 않음, 큰틀만 암기하고 이론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
3-4월	심화강의 수강 (주 2일, ALL DAY), 1-2월 내용의 반복, 강의 수강을 복습이라 생각하고 수강함(동일 내용의 반복 수강이라 초수생이 아니라면 스킵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때도 구조도 활용하여 큰 틀 꼼꼼히 암기
5-6월	시기부터는 논술문제에 대한 감을 익혀 감, 동시에 세부적인 내용 암기, 논술문제에서 묻는 문제에 대한 취지파악과 인출이 관건이라 생각하고 문제풀이(문장력은 이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문제풀이의 감을 익히고 남은 시간에는 세부 내용을 반복 암기+인출
7-8월	모의고사에서 틀린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 이 시기에는 빈출영역에 대한 암기는 8-90퍼센트 완료, 요약노트를 활용하여 반복해서 회독함,
9-10월	안 외워지는 이론/단계를 필사적으로 외움, 모의고사 풀며 요약노트 무한 회독
11월	매일 오전시간 활용 (2시간 이내), 요약노트 회독+인출

2. 전공 (위상미술 1년 커리/직+인강(코로나로 유동적)/스터디O/서브X)

저는 1년간 전체 패키지를 결제하였고 이벤트 기간 (12월 합격설명회)에 등록하여 일부 할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한 강사의 강의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위상 미술을 선택하였습니다. 직강으로 등록했지만 중간중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인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4월에는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시기에는 복습과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독립형 학습자로 스터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문제풀이/모의고사에 대한 직강 이후 당일 스터디만 진행했습니다. 전주에 진행한 모의고사를 4명에서 모여서 서로 설명해주는 식으로 하여 문제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직강 불가시, 진행하지 않음)

교육대학원 동기와 온라인 짝스터디를 진행하여 매일 매일 문제를 출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내는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며 저도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진도가 아닌 부분을 다시한번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아래 예시, 왼:문제, 오른:답)

5/22 표현2 1. 곽희가 산 전체를 화폭에 담으려는 취지로 <임천고지>에서 주장한 원근법의 이름과 구성요소를 쓰시오. 2. 시점을 고정하지 않고 걸으면서 보는 방식을 취하는 동양의 원근법의 명칭을 쓰시오. 3. 대기원근법과 투시원근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4. 삼각형 구도의 특징을 쓰시오. 5. 프롱크 정물화와 바니타스 정물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6. 동양화에서 일컫는 모, 임, 방의 3단계를 서술하시오. 7. 다음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용묵법(먹을 운용하는 기법)을 쓰시오. 	1. 삼원법,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2. 산점투시 3. 대기원근법은 명도 차와 색상 차를 이용하여 원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경은 강하고 선명하게, 중경은 중간 정도로, 원경은 흐리고 열게 채색한다. 투시원근법은 소실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선으로 물체의 외곽선을 표현하는데, 원경은 작게, 근경은 크게 그린다. 소실점 수에 따라 1점, 2점, 3점 투시로 나누어진다. 4. 통일감과 강한 구도로 등직하고 안정감을 준다. 5. 프롱크 정물화는 객관적인 묘사의 사실성과 상징성의 조화를 피하여 부와 사치 과시용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허영 또는 세속적 사물이 지니는 허망함을 표현한 정물화로 죽음의 필연성이나 인생 무상 등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6. 모는 그리고자 하는 그림 위에 종이를 포개고 거기에 비쳐 나오는 형상을 베껴 그리는 것이고, 임은 그림 옆에 종이를 나란히 두고 옮겨 그리는 것이며, 방은 그림을 관찰하여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7. 발묵법, 퇴묵법, 석묵법 8. 피마준, 부벽준, 절대준, 하엽준, 우점준, 우모준
8. 다음 그림과 가까운 준법을 각각 쓰시오. 	

저는 모든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기출 분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따라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저보다 전문가인 강사님들의 정리해준 자료와 강의를 체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강의를 듣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절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독서는 따로 구매하기도 했고 교육대학원에서 사용한 교재로 있었지만 수험기간동안 막상 따로 시간내서 읽지 못했습니다. (ㅠㅠ) 저는 게으른 편이기도 하고 하루 공부 시간이 간편도 아닌데다가 공부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필독서를 읽을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으로 만나오는 부분은 가끔 책에 있나 찾아보긴 했습니다.

전공의 각 파트별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동요 음원으로 전부 외웠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역시나 미출제(ππ)였지만 혹시나싶고 불안한 마음에 그냥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동요로 외우니 시간은 오래 걸려도 증발이 적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몇시간을 정해서 투자하지 않고 2-3일에 한 곡/ 일주일에 한 곡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스스로 만든 엑셀 틀에 직접 입력하여 A4 사이즈로 출력하여 보면서 외웠습니다.
미술교육론	미교론은 장쌤의 강의를 되집어보면서 최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기본서와 심화서를 바탕으로 암기+회독을 한 이후에 9월쯤 되었을 때 요약 노트를 스스로 작성하였습니다. A4 용지 8장 분량 정도로 매우 간략화 한 것인데 (미교론+비평), 이를 9월에 만든 이유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수에게 서브노트 제작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첨부파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새롭게 자신만의 양식과 언어로 다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출제의도나 분석은 잘하지만 암기가 잘 안되어 있다는 장쌤의 코멘트를 듣고 미교론에서 주요 키워드를 외우기 위하여 요약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계속 가지고 다니면 톡톡히 회독하고 인출했습니다.
표현	저는 표현 파트를 가장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제 전공은 디자인이라 다른 부분은 생소했지만 유튜브에서 제작과정을 찾아보며 위상쌤이 설명해주시는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제작과정이나 도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암기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못해보더라도 머리속에서 혼자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영상이 그려지도록 체화 시켰습니다. 디자인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동양미술사	동양미술사는 우선 중국미술사에 대해서 큰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술사는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 끝도 없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기본을 충실히 챙겼습니다. 기본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한 뒤에 가치를 쳐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때도 모르는 도판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기본이론에서 살을 붙여 서술하여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미술사	한국미술사에서는 회화에서는 중국미술사를 바탕으로 이해하시되, 한국사의 특성을 살려 이해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큰 흐름을 우선 파악하시고 조선시대 시대별로 구분을 잘 지어 공통점을 위주로 공부하시되, 작가별 차이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조각사/건축사를 제가 가장 어려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각사나 건축사를 그 깊이가 깊은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기본을 챙기시고 너무 깊이 파고 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특히 조각사/건축사는 도판을 자세히 보고 최대한 보이는 대로 충실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대별, 국가별 영향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는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현대 미술을 제외하고는 작가별 특성보다는 사조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대 미술에서는 재료나 주제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미술은 그 양이 많고 방대하여 저는 따로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모르는 도판을 보고 최대한 추측해보고 재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임고생 시절 궁금했던 내용으로 기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단권화: 기본서를 바탕으로 심화서의 내용이나 모의고사에서 추가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넣은 단권화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따로 포스트잇이나 한쪽 옆에 적어 넣은 단권화를 의미합니다. 기본서를 끝까지 회독을 자주 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내용보다는 정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 서브노트: 초수생에게 서브노트 제작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교론/감상 파트만 정말 초 요약노트를 만들었고 이는 딱 하루 3시간 정도를 투자하여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를 앞서 언급했듯 키워드에 대한 암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작한 시기는 이미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끝마친 9월 이후에 제작하였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서브 제작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공부시간: 저는 올빼미형이라 공부 시작을 거의 점심 식사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대신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말 공부만한 순공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였고, 아주 집중이 잘되었을 때만 8~9시간이었으나 드물었습니다. (ㅠ) 1-6월에는 일주일 중 하루는 꼭 쉬며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에는 4박 5일 가족 해외여행(코로나 전)도 다녀왔습니다. 7월 이후로는 일주일 중 반나절정도는 할애하여 휴식 및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케줄표 예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주시	2. 주시	3. 계산	4. 주시	5. 주시	6. 주시	7. 계산
8. 주시	9. 주시	10. 계산	11. 주시	12. 주시	13. 주시	14. 계산
15. 주시	16. 주시	17. 계산	18. 주시	19. 주시	20. 주시	21. 계산
22. 주시	23. 주시	24. 계산	25. 주시	26. 주시	27. 주시	28. 계산
29. 주시	30. 주시	31. 계산				

- 스터디: 전공만 2개 (둘 다 5월부터 시작), 짝스터디로 문제내기/직강 후 지난주차 모고 복습(2-3시간), 저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 독립형 학습자였습니다만 복습이나 매일 꾸준히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느슨해지기 때문에 2개의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 2차 준비(실기): 저는 대입 실기는 사고의 전환과 인체 소묘를 했었지만 워낙 오래 전 일이었습니다. 평달에는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지역을 목표로 준비하였으나 개인적 상황과 서울 티오 급감으로 갑자기 경기도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외 과목을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실기 2과목으로 줄면서 다행히 동양화/디자인을 선택하였고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4과목으로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실기 변별이 정말 크니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1차 성적이 최우선입니다.

- 2차 준비 (면접/수업실연/나눔): 저는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이나 수업실연 준비에서 크게 떨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했지만 면접이나 프로젝트 발표 경험 덕분에 떨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정리본과 미교론 요약노트를 제 블로그에 업로드 해두었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참고만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후 블로그에서 교육학과 전공 도서 무료나눔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hyunju828/222251168341>